

나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나주시는 동강면 월양지구 등 총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중장기 국가정책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100년 넘는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강면 월양지구 등 9개지구 8600필지 사업비 16억원 투입...내년 말 완료 계획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세지면 내정1지구 등 7개 지구(3000필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완료했다. 반남면 신촌1지구 등 12개 지구 1만 필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올해 동강면 월양지구·대전2지구·장동2지구·육정지구·곡천2지구·대지지구·월송지구·양지지구·운산지구 등 총 9개 지구 86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한다. 측량 작업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지적측량업체와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공정별 업무를 분담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열람, 의견취구를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경

계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미령 나주시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측량 비용 부담 없이 토지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고 경계분쟁 해소와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체와의 적극 협력해 완성도 높은 지적재조사 측량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국가기술자격 떡 제조기능사 취득과정 개강

이론과정 5회 20시간·실기과정 5회 20시간 총 10회 진행

구례군은 지난 17일 용방면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교육의 일환으로 국가 기술자격증 떡 제조기능사 과정을 개강했다. 떡 제조기능사 취득교육은 이날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필기 이론교육 5회 20시간, 6월 16일까지 실기 실습 교육 5회 20시간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농촌 여성들에게 생활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은 지난해 신설돼 곡류, 두류, 과채류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각종 떡류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빵

기, 찌기, 발효, 지지기, 치기, 삶기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식품위생과 개인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으로 쌀과 지역 농산물을 연계한 구례만의 특색 있는 퓨전 떡 제품이 개발돼 농촌여성에게 농외소득 증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교육장 소독 및 교육 참석자 간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교육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호흡기증상을 체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형 혁신사례, 올해는 내가 주인공

전 직원 공모 곡성 정책연구소 '시동'...새로운 조직문화 조성

곡성군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직원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동아리 '곡성 정책연구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 정책연구소는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혁신시책 발굴과 실행가능한 곡성형 혁신사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조직 문화 조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또한, 참신한 사례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직렬, 직급에 상관없이 자율적인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지역실정 반영을 위해 지역 내 활동 전문가의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3월까지 직원들의 동아리 구성 신청을 받아 5개 내외의 우수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팀은

앞으로 △지역경제 △창의교육 △그물망복지 △문화관광 △미래농업 △감동행정 등 균형운영방향의 분야별 자유 주제를 선정해, 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연말에는 활동보고회를 개최해 혁신과제 발굴성과를 공무원은 물론 군민과 공유하고 우수 과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균형 혁신과제를 발굴토록 동아리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장성군의회, 제1기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장성군의회가 제1기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장성군의회는 22일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장성군의회 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행정, 시민참여,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의 호선으로 조대위원장은 박상근 전 장성군 의원이, 부위원장은 윤석근 전 전라남도 안전건설과장이 선출되었다. 위촉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위한 위원회 활동 및 의정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동섭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장성군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을 제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 대덕면, 봄맞이 마을 정화활동

기초질서 캠페인도 전개...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담양 대덕면은 지난 19일 마을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담양=박종영기자**

각 마을에서는 이장을 주축으로 마을 내 무단 방치된 쓰레기 등을 일제 청소했으며, 장기간 방치된 숨은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이날 전개한 기초질서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홍보했다. 김용호 대덕면장은 "대청소와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정한 대덕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오늘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일제 점검

시설하우스·축사 등 대상

화순군이 오는 25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한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업 분야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1인 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원을 진단 검사 받게 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는 관련법 상 행정처분과 별도의 비용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화순군은 7개 점검반을 구성해 농업 사업장을 직접 방문,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살피고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는 행정명령 내용을 안내해 기한 내 검사를 마치게 할 방침이다. ▲1일 1회 증상 확인 ▲유증상자 조퇴 ▲순 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 ▲시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홍보와 지도단속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화순 농산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